

# 대학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의 특성

한송이<sup>1</sup>, 배상훈<sup>2\*</sup>

<sup>1</sup>세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sup>2</sup>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Features of Students Moving for University Education

Song-Ie Han<sup>1</sup>, Sang-Hoon Bae<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emyu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을 위해 입학 단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8년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 자료를 분석하였다. 교차 분석(카이제곱 검정)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지역 학생들은 서울, 경인, 지방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지방 출신 학생의 경우 낮은 비율의 학생들이 서울 지역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 교육을 위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 집단이 사회경제적 배경, 고교 유형과 성취 수준, 진로 성숙 수준, 대학몰입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 구조를 극복하고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주제어 : 고등교육, 대학 서열화, 학생 이동, 학생 다양성,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students moving to other areas for university education in entrance stage. 2018 K-NSSE data were analyzed, and Chi-square 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many students in Seoul area moved to various areas, but students from local areas moved to Seoul area universities with low percentag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socioeconomic background, high school type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career maturity, and university commitment level among the students group moving from Seoul to the local and from the local to Seoul are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to overcome the stratification structure of the university centered on Seoul and to secure diversity of student composi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Key Words : Higher Education, Stratification of Universities, Student Mobility, Student Diversity, K-NSSE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퍼져있다[1]. 여기서 '벚꽃 피는

순서'란, 통상 대학이 '서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1980년대 이후 양적으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서열화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emyung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9.

\*Corresponding Author : Sang-Hoon Bae(sbae@skku.edu)

Received December 27, 2019

Revised January 20, 2020

Accepted February 20,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고 있다[2-4]. 현실 세계에서는 소위 '인서울(In Seoul)', 특히 사회적 평판이 높은 명문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는 단순히 대학 간 순위의 공고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 특히 '서울'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구분하는 지역적 서열화 문화로 이어졌다. 어느 지역이든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들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하려 하고, 지방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펼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5].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재학생 충원율에서도 지방 대학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6]. 이러한 대학의 지역적 서열화는 지방 대학의 몰락, 나아가 지역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참고: [7,3]). 지방 대학의 황폐화는 지역의 교육적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6].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 이동(Student mobility)은 여러 요인이 혼재된 복합적인 개념이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대학 내 전공의 이동(Within the institution), 대학 간 이동(Between institutions), 다른 나라로 이동, 국내에서 지역 간 이동 등 다양한 이동 현상을 포함한다. 이 중 가장 연구가 활발한 분야는 대학 간 이동이다. 구체적으로 대학 입학 후 이동, 즉 중도탈락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예: [8-11]). 대표적으로 김수연[8]의 연구에 의하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전문대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지방 4년제 대학에서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의 원인으로서는 엄격한 대학 서열화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열화된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지방 대학은 학업 성취 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종의 주변적인 학생들(Marginal students)이 모이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12]. 반면,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옮긴 편입생들은 편입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상실하는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11].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동 중에서 특히 '지역 간 이동'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 이동은 여러 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13]. 학생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면서 여러 지역으로 이동이 이루어진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국제학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진학하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다. 초·중등 학생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되거나, 인근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의 성취, 의지 및 선택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 대학으로 진학하기도 하고,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도 많다. 같은 지역 내에서 인근으로 이동하는 것과 달리 지방에서 서울로 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큰 환경 변화를 수반한다. 대학 입학과 함께 초·중등교육을 경험한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학생들은 캠퍼스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14].

학생의 지역 이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이동 후에 경험한 대학 생활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지방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14], 지방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수도권 출신 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연구[15]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학생의 지역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 조영국[4]은 노동시장 여건과 관련하여, 대학 진학의 수도권 지향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진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박지희[16]는 대학 진학에 있어서 남녀의 지역별 패턴을 살펴보고, 지역적으로 불평등한 진학 구조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그러한 이동에 영향을 준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나아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긴 학생을 대상으로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개인 차원에서 지역 이동은 향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17].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혹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 차원이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 이동에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사회적 역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고등교육 차원에서 보면,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은 학생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학습 기회를 찾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적 소외와 적응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학습 부진과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큰 기회이자 위협의 요인을 함께 지닌

지역 간 학생 이동 현상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어떠한 특징을 지닌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이동 후 다른 지역에서 갖게 되는 경험을 분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특히 서울과 다른 지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이동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을 위해 서울 지역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갖는 인구 사회학적 배경, 고교 유형과 성취 수준, 진로 성숙도,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부모 인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 단계에서, 출신 지역에 남은 학생 집단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학생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이동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학부교육 실태 조사(K-NSSSE)’ 자료를 분석하였고, 여기에는 대학생의 지역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출신 고교 소재지와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위 조사에는 전국 125개 대학에 재학 중인 76,58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대학 진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1학년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 등을 제외한 23,431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 2.2 연구 변인 및 자료 분석

대학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독립변인은 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고교 유형과 성취 수준, 진로 성숙도,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부모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분석에 앞서, 학생의 출신 고교 소재지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를 서울, 경인, 지방으로 나누어 총 9개의 학생 집단을 도출하였다(서울→서울=1, 서울→경인=2, 서울→지방=3, 경인→서울=4, 경인→경인=5, 경인→지방=6, 지방→서울=7, 지방→경인=8, 지방→지방=9). 우선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동 패턴을 탐색하기 위하여, 위의 9개 집단을 대상으로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장 급격한 변화를 한 서울 출신 학생 집단(1, 3 집단)과 지방 출신 학생 집단(7, 9 집단)을 분석하였다. 종속 변인인 학생 이동은 범주형 이분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이 해당 특정 집단(서울→지방, 지방→서울)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Table 1.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Items
Back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nder: female=0, male=1</li> <li>▪ Age</li> <li>▪ Major: six dummy variables (reference group: Art&amp;Physical)</li> <li>▪ SES: household income: less than 1million won=1, 1-1.99=2, ..., more than 8million won=9)</li> </ul>
Pre-college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igh school type: the others=0, Special high school=1</li> <li>▪ High school GPA: the bottom 4%=1, ..., the top 4%=9</li> </ul>
Perce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ide of college</li> <li>▪ Parents' positive perspectives</li> <li>▪ Perception of career development</li> <li>▪ (never=0, sometimes=20, often=40, very often=60)</li> </ul>
Student mo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cation of highschool x location of univ. (Seoul, Gyeong-in, Local)</li> <li>▪ from Seoul (HS) to Seoul (Univ.)=1, ..., from local to local=9</li> </ul>

## 3. 연구 결과

### 3.1 출신 지역별 학생 이동 양상

대학생의 출신 지역과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출신 고교 소재지와 대학 소재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 출신 학생 중에서 18.4%는 경인 지역의 대학으로, 42.7%는 지방 대학으로 이동하였다. 경인 지역의 경우, 18.5%는 서울로, 60.7%는 지방으로 이동하였다. 반면, 지방 출신 학생들은 서울과 경인 지역으로 각각 4.9%와 2.0%만 이동하였다.

서울과 (경인 지역을 제외한) 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 출신 고교생의 경우 경인 지역과 지방의 대학으로 많은 비율의 학생(42.7%)이 이동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소수 비율의 학생(4.9%)만 서울 지역 대학으로 이동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만약,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

로 이동하는 소수 학생 집단의 고교 단계 학업 성취 수준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다면, 이는 서울 소재 대학 중심의 대학 서열화가 서울과 지방의 사회적, 교육적 격차로 이어지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동하는 학생의 절대적인 숫자를 대학 차원에서 보면, 서울 지역 대학과 비교해서 지방 대학의 경우, 학생 구성의 다양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2. Result of Chi-squared test

		Location of Univ.		
		Seoul	Gyung-In	Local
Location of High school	Seoul	1,210 (38.9%)	574 (18.4%)	1,329 (42.7%)
	Gyung-In	1,142 (18.5%)	1,281 (20.8%)	3,744 (60.7%)
	Local	697 (4.9%)	286 (2.0%)	13,168 (93.1%)

$\chi^2=5594.028$  ( $p<.000$ ),  $df=4$

### 3.2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학생들 특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수반하는 서울과 (경인 지역을 제외한) 지방 간 학생 이동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3, 4에 제시되었다.

우선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을 서울 지역에 남는 학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Table 3 참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방의 대학으로 진학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딸은 될 수 있으면 집과 가까운 곳으로 진학 시키려고 했던 문화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16]. 나아가 적을수록,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아닐수록, 고교 내 신등급이 낮을수록 지방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컸다. 이는 서울 지역 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높은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Table 3. Mobility from Seoul to local area

	B	S.E.	Wals	df	p	Exp(B)
a	1.035	.112	85.449	1	.000	2.816
b	-.077	.039	3.946	1	.047	.926
Major*						
c	.600	.198	9.233	1	.002	1.823
d	2.159	.329	43.037	1	.000	8.664
e	.647	.204	10.104	1	.001	1.911
f	1.961	.217	81.959	1	.000	7.108
g	2.700	.662	16.626	1	.000	14.873
h	.900	.236	14.527	1	.000	2.459
i	-.793	.156	25.686	1	.000	.453

j	-.564	.045	160.113	1	.000	.569
k	.024	.022	1.186	1	.276	1.025
l	-.013	.004	13.155	1	.000	.987
m	-.017	.004	20.909	1	.000	.983
n	.022	.004	29.224	1	.000	1.022
상수항	3.971	.857	21.491	1	.000	53.057

a) Male, b) Age, c) Humanities, d) Social science, e) Education, f) Engineering, g) Nature science, h) Medical, i) Special high school, j) High school GPA, k) SES, l) Pride of college, m) Parents' positive perspectives, n) Perception of career development  
\*reference: Art & physical

한편, 서울에 남은 학생의 경우 지방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과 비교해서 대학에 대학 자부심과 대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에 서울을 중심으로 높은 사회적 평판이 형성되는 서열화가 고착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의 진로 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의 대학으로 진학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서울 출신 학생이 지방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보다는 학과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크고,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수경 외 [18]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방의 대학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은 대학의 사회적 평판이 낮아도 자신의 미래 진로나 직업을 고려하여 진학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경우, 예체능 계열 대비 다른 계열에 속할 학생일수록 지방으로 이동한 학생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사회경제적지위를 나타내는 가계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방에서 서울 지역의 대학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지방 출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적다는 김미란[19]의 연구와 상반되지만, 그러한 결과는 여성의 대학 진학 기회가 사회경제적 계층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Table 4. Mobility from local area to Seoul

	B	S.E.	Wals	df	p	Exp(B)
a	-.581	.112	26.809	1	.000	.559
b	.037	.036	1.020	1	.313	1.037
Major*			139.221	6	.000	
c	-.678	.168	16.225	1	.000	.508
d	-2.163	.253	73.408	1	.000	.115
e	-.671	.178	14.163	1	.000	.511
f	-1.697	.191	78.761	1	.000	.183
g	-2.233	.455	24.125	1	.000	.107

h	-.438	.205	4.545	1	.033	.645
i	2.184	.150	211.385	1	.000	8.885
j	1.028	.045	519.127	1	.000	2.795
k	.121	.022	31.518	1	.000	1.129
l	.021	.003	38.967	1	.000	1.021
m	.017	.004	21.395	1	.000	1.017
n	-.020	.004	28.029	1	.000	.980
상수항	-10.847	.789	189.126	1	.000	.000

a) Male, b) Age, c) Humanities, d) Social science, e) Education, f) Engineering, g) Nature science, h) Medical, i) Special high school, j) High school GPA, k) SES, l) Pride of college, m) Parents' positive perspectives, n) Perception of career development  
\*reference: Art & physical

다음으로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일수록, 고교내신 등급과 가계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지방에서 서울 지역 대학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 수준이 높아야 사회적 평판이 높은 대학, 즉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선 결과(Table 3)와 달리 가계소득수준의 경우,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로 진학해서 생활하려면 경제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에 부합한 결과이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지방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포부를 분석한 연구결과[20]와도 일관된다. 또한, 자녀의 대학 진학 포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21-22],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대학 진학 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진학한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부모의 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지방에서 서울 지역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일 확률이 높았다. 또한, 진로 성숙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 학생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또한 대학 서열화라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나 부모의 대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의 경우, 예체능 계열에 비해 모든 계열이 서울로 이동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 4.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대학들은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견고한 서열화 구조를 유지해왔다. 즉, 지역 간 대학의 서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유례없는 위기마저 지방 대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학생의 지역 이동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 지역과 지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이동이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지역 학생들은 서울, 경인, 지방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지만, 지방 출신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학생들이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동하는 소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다는 것은 지역 불균형 발전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 대학은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서울 소재 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은 대학생의 다양한 가치관과 성장 경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학생 특성이다 [23-24]. 게다가 이주이와 배상훈[25]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차원에서 학생 구성의 지역적 다양성은 학생의 고차원 학습 및 반성적 학습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생 이동의 불균형 현상은 교육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지역 불균형 현상과 함께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지방 대학의 학생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지방 출신으로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본인의 역량 외 다른 이유로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에서 지방 대학으로, 지방에서 서울 지역 대학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먼저 남학생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일반고 출신일수록, 고교 내신등급이 낮을수록,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낮은 학생일수록, 진로 성숙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서울 출신으로 서울 지역 대학에 남아 있기보다 지방 대학으로 이동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여학생일수록, 특목고/자사고 출신이며, 고교내신등급과 가계소득수준이 높고,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지방에 남아 있지 않고 서울로 이동하는 학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차이는 서울 중심 대학 서열화를 학생 이동의 면에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고교 수준에서 학업 성취가 높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서울 소재 대학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이 크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울 지역 대학의 졸업자들이 취업, 임금의 면에서 노동시장 성과가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 크다는 점과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특목고/자사고 출신이거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생태계가 교육의 사회적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대학 진학 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도 지지한다는 점에서 교육사회학적 함의가 크다.

다음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 대학이 학생 다양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적극적인 학습 참여(Student engagement)를 매개로 높은 학생 성과를 유도한다[26]. 이렇게 볼 때, 지방 대학은 대학생의 학습 참여의 면에서 불리한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지방 대학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자본(Creative capital)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 Richard Florida에 의하면, 다양성이야말로 창조적 계층(Creative class)을 키우고 조직과 지역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원천이다[27]. 이렇게 볼 때, 지방 대학에 내재한 학생 구성 다양성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지방 대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 이동의 면에서 이러한 서열화가 지속하고 있음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차원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제일뿐더러 다양한 학습 환경을 통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서열화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 R. Kim. (2019.8.11.). *Autonomosization of College enrollment quota...“Cherry blossoms in order.”* The Seoul Shinmun.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12014012&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12014012&wlog_tag3=naver).
- [2] A. N. Kim. (2003). Trends in Scholastic Ability Test Scores of College Students and Strat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3(3), 65-83.
- [3] H. Y. Oh. (2015). A Study on the Hierarchical Ranking Structure of University and Education.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8(2), 8-13. DOI : 10.18108/jeer.2015.18.2.8
- [4] Y. K. Joh. (2005).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election behaviour of high school leavers, Korea. *Journal of Geography*, 45, 227-238
- [5] S. Y. Chun, S. Y. Lee & S. H. Lee. (2005). Local Financial Resource Drain Caused by the Student Indraft of Seoul Area Universities and the Hollowing of Provincial Universit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3(1), 307-326.
- [6] S. H. Bae, S. I. Han & B. Byun. (2019).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y looking at statistics. *Higher Education*, 206, 22-31.
- [7] K. K. Kim. (1999). *Breaking college ranks: Only college entrance levelling policy is the way to live.* Seoul: Kaemagowon.
- [8] S. Y. Kim. (2012).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 Dropouts' Mobility Paths and Structure. *Educational Research*, 43(3), 131-163.
- [9] Y. J. Oh. (2005).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tudent Mobility betwee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3(1), 327-356.
- [10] T. J. Rhine, D. M. Milligan & L. R. Nelson. (2000). Alleviating transfer shock: An environment for more successful transfer students.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24(6), 443-453. DOI : 10.1080/10668920050137228
- [11] S. A. Woosley & N. J. Johnson. (2006). A comparison of the academic and cocurricular outcomes of residence hall transfer students and nontransfe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Housing*, 34(1), 25-30.
- [12] H. I. Joo. (2010). An Autoethnographic Study of the Provincial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in Jibangdae(Provincial University). *Media, Gender & Culture*, 13, 75-113.
- [13] B. Huang & X. Ren. (2017). *The effect of tightness-looseness on well-being: Residential mobility as a moderator.* In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nd Engineering Management (IEEM) (pp. 2189-2193). IEEE. DOI : 10.1109/ieem.2017.8290280
- [14] Y. S. Lem & Y. J. An. (2017). Living in Seoul as a 'Female University Student from the Provinces':

Applying Photovoice to Living-in-Seoul. *The Journal of Asian Women*, 56(2), 205-256.

- [15] M. O. Yang, H. S. Kim & J. H. Lee. (2015). To live as a Local University Stud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 267-286.
- [16] J. H. Park. (2009). A Study on the Gender Spatialty in the Entrance into a Tertiary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Education*, 53, 15-28.
- [17] H. W. Lee. (2005). Employment Mobility of Local Women.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2005.5.12.). 16-17.
- [18] S. K. Yoon, Y. K. Han, S. H. Im & W. Y. Kim. (2015).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College and Major Sele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2(2), 87-107.
- [19] M. R. Kim. (2004). Meritocracy Structure in Opportunities of Higher Education : Admission Opportunities of Genders to Each Typ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0, 1-21.
- [20] S. E. Park & B. E. Seo. (2017). Determinants of local choice of university in educational aspiration : Focus on influences of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7(3), 29-56.  
DOI : 10.32465/ksocio.2017.27.3.002
- [21] K. K. Kim & S. Y. Byun. (2006). Determinants of children's educational transi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4), 1-27.
- [22] M. J. Lee, M. M. Bong & S. K. Kwon. (2010). Predictors of Career Aspirations for Adolescents from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2), 423-447.
- [23] M. R. Kim. (2014). How do students experience different university life according to different social class of fami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4(2), 25-65.  
DOI : 10.32465/ksocio.2014.24.2.002
- [24] S. A. Lee. (2017). A Narrative Inquiry into University Students' Difficulty of Campus Life who are Placed under Academic Probation: Focus on Social Relations.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20(3), 227-257.  
DOI : 10.17318/jae.2017.20.3.007
- [25] J. I. Lee & S. H. Bae. (2018). The Effects of Diversity in Demographic Profile of Students in the Institution on Higher-order Learning and Reflective Learning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2), 139-165.  
DOI : 10.22553/keas.2018.36.2.139
- [26] G. D. Kuh, J. Kinzie, J. Buckley, B. Bridges & J. C. Hayek. (2006). *What matters to student succ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Commissioned report for the National Symposium on Postsecondary Student Success: Spearheading a Dialog on Student Success*. Washington, DC: National Postsecondary Education

Cooperative.

- [27] R. Florida.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York: Basic Books.

한 송 이(Song-Ie Han)

[경력]



- 201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201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8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철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세명대학교 교양

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대학조직, 학습참여, 학생경험, 공동체 등
- E-Mail : hsiedu.3@gmail.com

배 상 훈(Sang-Hoon Bae)

[경력]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문학사)
- 2004년 5월 : Penn State University, Workforce Education & Development(M. S)
- 2006년 5월 : Penn State University, Workforce Education & Development(Ph.D)

· 2010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개혁, 정책효과성, 학생성공, 학습참여 등
- E-Mail : sbae@skku.edu